

버릴 수 없는 것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다



18 영암 도갑사(道岬寺)

비가 온다. 비를 맞으며 산새들이 개울 위를 날아간다. 산새들이 건너간 개울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눈을 감아야 들리는 노래처럼 소리 없이 가을비가 내린다. 오솔길이 눈을 감고, 돌계단 위의 낙엽들이 눈을 감는다. 도량이 가을비에 젖는다. 도갑사다.

월출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갑사는 신라 말기에 도선(道詵·827~898) 국사가 창건했다. 조선시대 수미 스님이 중건했으며 연담·허주·조의 선사 등 기라성같은 선지식들이 주석했다. 정유재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도량이 많이 소실

됐다. 최근까지 대웅보전을 복원하는 등 불사가 이어졌으며, 옛 가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 온 오이를 건져 먹는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다. 전설이다. 그 아이가 도선 스님이다.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던 아이는 결국 버려지게 되지만 그 아이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그 아이를 비둘기가 기르고 있었다. 도선은 결코 세상이 버릴 수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석탑도 눈을 감는다. 버티고 버티던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가을비에 젖은 석탑이 빗물을 똑똑 흘리고 있다. 그 옛날, 전쟁의 화마에도 눈 하나 감지 않았던 석탑이 한 방울 한 방울 소리 없이

내리는 가을비에 젖고 또 젖을 뿐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세찬 바람이 아니라 뜨겁게 나그네를 바라보았던 태양이었듯 그 무뎠던 석탑을 무너뜨린 건 눈을 감고 들어야만 들려오는 가을비였다.

버릴 수 없는 것이 가슴 속에 있어 험겨운 날을 지나고 있다면 도갑사에 가 볼 일이다. 세상이 버리지 못했던 도선 스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화마도 어찌지 못했던 석탑이 한 방울 가을비에 젖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버릴 수 없는 것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갑사에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풍도 가을비에 젖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